



미국, 피클볼 인기와 보험시장 영향

홍보배 연구원

요약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특히 피클볼(Pickleball)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전체 피클볼 참여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피클볼로 인한 고령층의 부상 및 의료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피클볼 부상에 따른 관련 수술 및 시술에 대한 수요도 예상보다 높아 미국 건강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스포츠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특히 피클볼(Pickleball)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피클볼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 경기 종목으로,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의 요소가 결합된 레저 스포츠임
 - 신체 접촉이 없고 실내외에서 2~4인으로 경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급성장함
- 미국 스포츠&피트니스 산업 협회(Sports & Fitness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피클볼 참여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인 2019년 350만 명에서 2022년 890만 명으로 동기간 약 159% 늘어남¹⁾(〈그림 1〉 참조)
 -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51% 큰 폭 증가한 2,230만 명의 미국인이 피클볼을 즐길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에는 프로 피클볼 리그인 '메이저리그 피클볼(MLP)'까지 창설되었으며, 최근 르브론 제임스(LeBron James), 케빈 듀란트(Kevin Durant) 등 스타 운동선수들이 프로 피클볼 팀에 투자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²⁾

○ 이처럼 미국에서 피클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부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피클볼 참여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피클볼 관련 고령층 부상 및 의료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UBS Research에 따르면, 피클볼 부상으로 인한 응급실(Emergency Departments; EDs) 방문 건수는 2014년 1,227건에서 2019년 9,414건으로 큰 폭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약 66,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³⁾
- 이처럼 고령층의 피클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피클볼로 인한 부상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⁴⁾

1) Sports&Fitness Industry Association(2023. 2. 22), "Topline Participation Report 2023"

2) CNBC(2023. 1. 5), "Pickleball popularity exploded last year, with more than 36 million playing the sport"

3) UBS(2023. 6. 26), "Health Care Providers, Is Pickleball Driving Higher Health Care Utilization?"

4) Weiss et al.(2021. 5), "Non-fatal senior pickleball and tennis-related injuries treated in United States emer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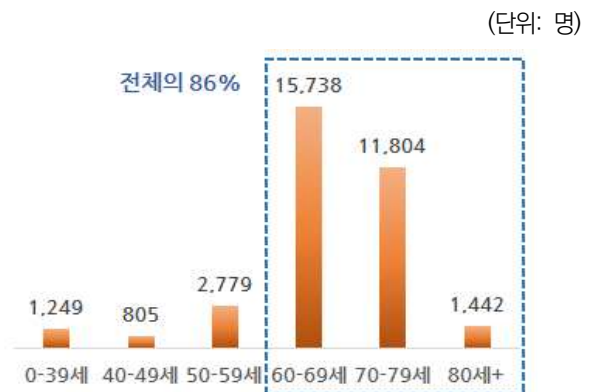
- UBS는 2022년 피클볼 참여자 890만 명 중 2022년 열성적인 참여자(연간 8회 이상 경기)의 3분의 1 이상이 5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밝혔음
- 2010~2019년 피클볼 부상으로 인한 응급실(Emergency Departments; EDs) 방문 총 건수는 3만 3,800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2만 8,984건으로 전체의 86%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하였음(〈그림 2〉 참조)

〈그림 1〉 미국의 피클볼 참여자 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UBS(2023. 6. 26), "Health Care Providers, Is Pickleball Driving Higher Health Care Utilization?"

〈그림 2〉 미국 피클볼 부상자 나이별 응급실(EDs) 방문



자료: Weiss et al.(2021. 5), "Non-fatal senior pickleball and tennis-related injuries treated in United States emergency departments, 2010-2019", The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58(2), pp.275-279

○ 최근, 피클볼 관련 부상에 따른 수술 및 시술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미국 건강보험회사들에 대한 의료비 보험금 청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건강보험회사들은 최근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고령층의 고관절 교체, 무릎 수술 및 기타 시술 등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높고 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함⁵⁾
 - United Health와 Humana는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향후 손해율이 다소 악화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UBS는 피클볼로 인한 부상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임
- UBS는 2023년 피클볼로 인한 미국의 의료비용은 최소 2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⁶⁾
 - 이는 2023년 미국의 '예상치 못한 수요에 따른 총 의료비용(Unexpected Medical Cost)'의 약 5~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활동적인 고령층의 증가,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고령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고령층의 부상도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이는 의료비용 및 건강보험금 청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는 단기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실이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departments, 2010-2019", The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58(2), pp.275-279

5) UBS(2023. 6. 26), "Health Care Providers, Is Pickleball Driving Higher Health Care Utilization?"

6) The Hill(2023. 6. 27), "Analysts estimate pickleball injuries could cost Americans as much as \$500M this year"